

#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 : 여가경험은 심리적 완충효과가 있는가?

## The middle-aged married women's relationship with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

### : Does leisure experiences have a psychological buffering effect?

문상정<sup>1</sup>

Sang-Jeong Moon<sup>1</sup>

요약

본 연구는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부갈등과 화병간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의 완충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그리고 경남에 거주하는 중년기혼여성 309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8월~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첫째,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를 탐험적인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 부부갈등이 화병(정서증상,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갈등이 화병(정서증상,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가경험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여가경험이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갈등과 화병(정서증상)사이에서 화병(정서증상)을 감소시켜주는 긍정적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경험은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공동생활 갈등과 화병(신체증상)사이에서 화병을 감소시켜주는 긍정적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갈등과 화병(정서증상)의 관계는 여가경험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생활 갈등과 화병(신체증상)의 관계는 여가경험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중년기혼여성, 부부갈등, 화병, 여가경험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 in middle-aged married women. Furthermore, it seeks to investigate whether leisure experience has the effects of buffering with hwa-byu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309 middle-aged married women who lived in Daegu & Gyeongbuk and Gyeongnam were analyzed. The survey period spanned from August 2023 to November of the same year. First, as a result of

<sup>1</sup> Division of Liberal Arts, Gimcheon University, Gimcheon,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sjmoon@gimcheon.ac.kr

\* 이 논문은 2023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3065).

Received(January 17, 2024), Review Result(1st: February 9, 2024), Accepted(April 5, 2024), Published(April 30, 2024)



© 2024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investigating at the exploratory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 in the middle-aged married women, it was found that marital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hwa-byung(emotional symptoms, physical symptoms). Second, it was tested whether leisure experience had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hwa-byung(emotional symptoms, physical symptoms). As a result of the testing, it was found that leisure experience had positive buffering effects that reduced hwa-byu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onflict, which is a sub-factor of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emotional symptoms). And it was found that leisure experience had positive buffering effects that reduced hwa-byu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al life conflict, which is a sub-factor of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physical symptom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onflict and hwa-byung(emotional symptom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leisure experienc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al life conflict and hwa-byung(physical symptom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leisure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aid that this study has theoretical value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reveal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hwa-byung.

Keyword : Middle-aged Married Women, Marital Conflict, Hwa-Byung, Leisure Experience

## 1. 서론

‘울화병(鬱火病)’ 또는 ‘심화병(心火病)’으로 불리는 화병은 억울한 마음을 삭이지 못하여 통증, 답답함, 불면증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나타나는 증세를 말한다. 예컨대 화병은 분노의 감정에서 기인하는데, 분노를 풀 길도 없고 화를 표출해봤자 아무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나타난다 [1]. 특히, 중년기혼여성들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자유로운 정서표현이 권장되지 않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희생하고 인내하며, 자신들의 화와 분노를 해소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화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병을 유발하는 생활 스트레스 영역으로는 부부 문제, 시댁과의 문제, 자녀 문제, 부모와의 문제, 가족의 죽음 및 상실의 문제 [3] 등이 있지만, 화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중 가정적인 문제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중년기혼여성의 화병을 일상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방치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화병의 증상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체 체념과 억압을 통해 유발되며 정신·신체 증상(e.g 우울, 불안, 강박장애)까지 확대되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 [5][6].

물론 대부분의 중년기혼여성이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화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갈등의 경험과 화병증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화병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존의 화병에 대한 개입전략들은 주로 미시적인 가족관계수준에서 상담, 마음수련, 명상에 관한 연구 [8][9]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부부갈등으로 인한 중년기혼여성의 화병을 완충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여가경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경험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를 제안한 [10]은 부정적 사건이 일상의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지만 여가활동의 경험은 이를 완충시켜주므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유지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경험의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11]은 여가경험이 가지는 스트레스 대처기능을 ‘일시적 망각효과’(palliative effect)로 설명하였다. 즉, 여가경험이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과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기 혼 여성이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병을 회복하는데 있어 촉매작용을 하거나 화병을 완충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서 여가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문제와 한계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중년기혼 여성의 부부갈등은 화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2) 중년기혼 여성의 여가경험이 부부갈등으로 인한 화병에 긍정적 완충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3) 중년기혼 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는 여가경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2.1.1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근거하여 중년기혼 여성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의 하위구성요인으로 개인적 갈등, 부부관계 갈등, 공동생활 갈등, 제삼자 갈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며 총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리커트형 5점 척도).

#### 2.1.2 화병

본 연구에서 화병은 중년기혼 여성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분노 증후군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13]가 개발한 화병 증상 척도를 사용하여 중년기혼 여성이 지각하는 화병을 측정하고자 한다. 화병의 하위구성요인으로 정서 증상과 신체 증상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며 총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리커트형 5점 척도).

#### 2.1.3 여가경험

본 연구에서 여가경험은 자기결정, 사회교류, 감정정화 및 일상회피(해방감)의 욕구가 충족된 수준으로 정의 [14]한 개념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근거하여 중년기혼 여성이 지각하는 여가경험을 측정하고자 한다. 여가경험의 하위구성요인

으로 자기결정감, 사회적 교류, 해방감, 감정정화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며 총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리커트형 5점 척도)

## 2.2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조사의 대상은 중년기혼여성이므로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들에게 설문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별면접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하는 설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본인이 밀봉하여 조사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본은 대구·경북 그리고 경남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0세의 중년기혼여성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309부의 유효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3년 8월~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실증분석

###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은 평균 45.48세(sd=5.005)이며, 결혼기간은 평균 19.63년(sd=6.226)이었다. 부부여행, 가족월소득, 직업, 학력, 거주지역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0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309)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부 여행	한달에 1-2번	33	10.7	가족 월소득	100만원이하	2	0.6
	3개월 1-2번	56	18.1		100-200만원	28	9.1
	6개월 1-2번	79	25.6		200-300만원	75	24.3
	1년에 1-2번	59	19.1		300-400만원	72	23.3
	아주 가끔	82	26.5		400-500만원	65	21.0
				500만원이상	67	21.7	

직업	농축산업	2	0.6	직업	전문/관리직	21	6.8
	공무원	6	1.9		연구/교육직	30	9.7
	회사원	23	7.4		자영업	28	9.1
	생산/노무직	9	2.9		주부	125	40.5
	판매/서비스	38	12.3		기타	27	8.7
학력	고졸	125	40.5	학력	대학원졸	19	6.1
	전문대졸	76	24.6		기타	10	3.2
	4년제 대졸	79	25.5				
거주 지역	대구	131	42.4	연령	평균 (표준편차)	45.48(5.005)	
	경북	85	27.5	결혼 기간		`19.63(6.226)	
	경남	93	30.1				

### 3.2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우선,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4개 요인으로 가정하여 구성된 20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 문항의 구조적 분할이 모호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들 4개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모두 .70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개인적 갈등 .889, 부부관계 갈등 .783, 공동생활 갈등 .844, 제삼자 갈등 .734).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화병에 대하여 초기 2개 요인으로 가정하여 구성된 15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개 문항의 구조적 분할이 모호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들 2개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80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정서증상 .882, 신체증상 .864).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여가경험에 대하여 초기 4개 요인으로 가정하여 구성된 18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상과 같이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들 4개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모두 .80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자기결정감 .882, 사회적교류 .871, 해방감 .885, 감정정화 .872).

### 3.3 정서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 분석

중년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정서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enter)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연구문제 1). [표 2]를 보면, 회귀모형에 대하여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Durbin-Watson통계량은 1.626으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차한계가 작거나( $<0.1$ ), VIF값( $>10$ )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정서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서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다중회귀분석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arital conflict on emotional symptoms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공선성 통계량	
	B	$\beta$			공차한계	VIF
(상수)	.729		4.532	.000		
개인적 갈등	.163	.184	2.864	.004	.509	1.965
부부관계 갈등	.218	.221	3.150	.002	.427	2.339
공동생활 갈등	.145	.141	2.288	.023	.557	1.796
제삼자 갈등	.178	.180	2.882	.004	.541	1.847
R <sup>2</sup> =.360 Adjusted R <sup>2</sup> =.351 df(4,304) F=42.715 p=.000 Durbin-Watson = 1.626						

### 3.4 신체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 분석

중년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신체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enter)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연구문제 1). [표 3]을 보면, 회귀모형에 대하여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Durbin-Watson통계량은 1.724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차한계가 작거나(<0.1), VIF값(>10)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신체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신체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다중회귀분석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arital conflict on physical symptoms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공선성 통계량	
	B	$\beta$			공차한계	VIF
(상수)	.785		4.960	.000		
개인적 갈등	.154	.177	2.744	.006	.509	1.965
부부관계 갈등	.170	.176	2.503	.013	.427	2.339
공동생활 갈등	.221	.218	3.534	.000	.557	1.796
제삼자 갈등	.149	.153	2.446	.015	.541	1.847
R <sup>2</sup> =.356 Adjusted R <sup>2</sup> =.347 df(4,304) F=41.921 p=.000 Durbin-Watson = 1.724						

### 3.5 여가경험의 정서증상 완충효과에 대한 분석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의 완충효과를 분석한 것은 [표 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연구문제 2). 세부내용별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에서만 여가경험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한 결과, 개인적 갈등이 정서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유의한 설명력(R<sup>2</sup>=.074)이 있으며, 2단계에서 여가경험을

추가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설명력 변화( $R^2=.050$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회귀분석 한 결과 설명력 변화( $R^2=.012$ )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중년기혼여성의 여가경험은 부부갈등이 정서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여가경험이 정서증상을 줄여주는 완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정서증상에 대한 부부갈등과 여가경험의 상호작용 결과

[Table 4]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leisure experience on emotional symptoms

	모형	B	$\beta$	$R^2$	$\Delta R^2$	F 변화량	Sig. F 변화량
1	개인적 갈등	.225	.272***	.074	-	24.550***	.041
	개인적 갈등	.243	.294***				
	여가경험	-.321	-.224***				
2	개인적 갈등*여가경험	-.225	-1.137*	.124	.050	17.335***	
3				.136	.012	4.202*	
1	부부관계 갈등	.356	.391***	.153	-	55.434***	.367
	부부관계 갈등	.391	.429***				
	여가경험	-.370	-.258***				
2	부부관계 갈등*여가경험	-.092	-.436	.218	.065	25.538***	
3				.220	.002	.818	
1	공동생활 갈등	.270	.295***	.087	-	29.368***	.188
	공동생활 갈등	.289	.317***				
	여가경험	-.332	-.225***				
2	공동생활 갈등*여가경험	-.165	-.762	.137	.050	17.789***	
3				.142	.005	1.738	
1	제삼자 갈등	.293	.336***	.113	-	39.092***	.435
	제삼자 갈등	.310	.355***				
	여가경험	-.321	-.224***				
2	제삼자 갈등*여가경험	-.085	-.415	.163	.050	18.235***	
3				.165	.002	.611	

주1. :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단계를 요약함

주2 : \*:  $p<.05$ , \*\*:  $p<.01$ , \*\*\* :  $p<.001$

### 3.6 여가경험의 신체증상 완충효과에 대한 분석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의 완충효과를 분석한 것은 [표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연구문제 2). 세부내용별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공동생활 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만 여가경험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한 결과 공동생활 갈등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유의한 설명력( $R^2=.089$ )이 있으며, 2단계에서 여가경험을 추가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설명력 변화( $R^2=.022$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회귀분석 한 결과 설명력 변화( $R^2=.013$ )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중년기혼여성의 여가경험은 부부갈등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여가경험이 신체증상을 줄여주는 완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신체증상에 대한 부부갈등과 여가경험의 상호작용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leisure experience on physical symptoms

모형		B	β	R <sup>2</sup>	ΔR <sup>2</sup>	F 변화량	Sig. F 변화량	
1	개인적 갈등	.229	.280***	.078	-	26.028***	.078	
2	개인적 갈등	.242	.294***		.100	.022		7.747**
	여가경험	-.212	-.149**		.109	.009		3.128
3	개인적 갈등*여가경험	-.195	-.995					
1	부부관계 갈등	.324	.358***	.128	-	45.245***	.264	
2	부부관계 갈등	.348	.385***		.159	.031		11.113**
	여가경험	-.252	-.177**		.162	.003		1.255
3	부부관계 갈등*여가경험	-.117	-.560					
1	공동생활 갈등	.271	.299***	.089	-	30.103***	.032	
2	공동생활 갈등	.284	.313***		.111	.022		7.644**
	여가경험	-.213	-.150**		.125	.013		4.616*
3	공동생활 갈등*여가경험	-.270	-1.255*					
1	제삼자 갈등	.251	.289***	.084	-	27.997***	.484	
2	제삼자 갈등	.261	.301***		.104	.021		7.108**
	여가경험	-.206	-.145**		.106	.001		.492
3	제삼자 갈등*여가경험	-.078	-.385					

주1. :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단계를 요약함

주2. \*: p<.05, \*\*: p<.01, \*\*\*: p<.001

### 3.7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표 6]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Table 6] Differenc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emotional symptoms

종속 변수	집단구분	독립변수			
		개인적 갈등	부부관계 갈등	공동생활 갈등	제삼자 갈등
정서증상	여가경험 상(n=137)	.168*	.315**	.207*	.301**
		(.170)	(.326)	(.210)	(.311)
	여가경험 하(n=172)	.380**	.501**	.388**	.431**
		(.400)	(.550)	(.409)	(.461)
	Zr 차이검증값	1.990*	1.942n.s	1.725n.s	1.040n.s

주1. \*: P<.05, \*\*: P<.01, n.s는 non significant, 상관계수를 표준화상관계수(괄호속)로 변환 뒤 차이검증(Zr-test)

주2. : 여가경험집단 표준오차(Szr1-z2) = .1153

여가경험을 군집분석(K-MEAN 방식)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후에 부부갈등의 4개 차원과 정서증상의 관계가 여가경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연구문제 3). 단순상관계수를 표준화상관계수로 변환한 뒤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결과 [표 6]에서 보면, 개인적 갈등과 정서증상과의 관계는 여가경험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 여가경험이 높은 집단에서 그 관계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여가경험이 높은 집단의 중년기혼여성일수록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정서증상의 관계는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3.8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여가경험을 군집분석(K-MEAN 방식)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후에 부부갈등의 4개 차원과 신체증상의 관계가 여가경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연구문제 3). 단순상관계수를 표준화상관계수로 변환한 뒤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결과 [표 7]에서 보면, 공동생활 갈등과 신체증상과의 관계는 여가경험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 여가경험이 높은 집단에서 그 관계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여가경험이 높은 집단의 중년기혼여성일수록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신체증상의 관계는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표 7]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Table 7] Differenc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hysical symptoms

종속 변수	집단구분	독립변수			
		개인적 갈등	부부관계 갈등	공동생활 갈등	제삼자 갈등
신체증상	여가경험 상(n=137)	.188* (.190)	.280** (.288)	.186* (.188)	.254** (.260)
	여가경험 하(n=172)	.371** (.389)	.457** (.493)	.396** (.419)	.371** (.389)
	Zr 차이검증값	1.725n.s	1.777n.s	2.003*	1.118

주1 : \* : P<.05, \*\* : P<.01, n.s는 non significant, 상관계수를 표준화상관계수(괄호속)로 변환 뒤 차이검증(Zr-test)

주2 : 여가경험집단 표준오차(Szr1-zr2) = .1153

## 4.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이 화병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탐험적인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상관관계가 여가경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1)의 경우, 중년기혼여성과 화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정서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들은 개인적 갈등( $\beta=.184, p<.01$ ), 부부관계 갈등( $\beta=.221, p<.01$ ), 공동생활 갈등( $\beta=.141, p<.05$ ), 제삼자 갈등( $\beta=.180, p<.01$ )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성생활 문제, 부부사이에 대화가 부족, 애정이나 관심 및 지지부족으로 발생하는 부부관계 갈등영역이 정서증상에 가장 높은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증상에 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들은 개인적 갈등( $\beta=.177, p<.01$ ), 부부관계 갈등( $\beta=.176, p<.05$ ), 공동생활 갈등( $\beta=.218, p<.01$ ), 제삼자 갈등( $\beta=.153, p<.05$ )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전관리 및 소비의 문제, 가사노동 분담, 주거 및 주택문제 그리고 가족 여가활동문제로 발생하는 공동생활 갈등 영역이 신체증상에 가장 높은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경우,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이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갈등과 여가경험간의 상호작용항은 정서증상( $\beta=-1.137$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5$ ). 이러한 결과는 여가경험이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갈등과 정서증상사이에서 정서증상을 감소시켜주는 긍정적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가경험은 정서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인 부부갈등을 조절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공동생활 갈등과 여가경험간의 상호작용항은 신체증상( $\beta=-1.25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5$ ). 즉, 여가경험이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인 공동생활 갈등과 신체증상사이에서 신체증상을 감소시켜주는 긍정적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의 경우,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는 여가경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부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의 하위차원 중 개인적 갈등과 정서증상의 관계는 여가경험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부갈등의 다른 하위차원에서 정서증상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가경험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부갈등과 정서증상과의 관계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의 하위차원 중 공동생활 갈등과 신체증상의 관계는 여가경험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부갈등의 다른 하위차원에서 신체증상과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가경험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부갈등과 신체증상과의 관계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혼여성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여가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갈등으로 발생하는 화병(정서증상, 신체증상)을 긍정적으로 완충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여가경험은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공헌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여가경험을 수행한

이들이 정서적 안정 혹은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한다는 [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복잡하지만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이 화병을 완충할 수 있는 대처차원으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화병의 관계에서 여가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혼여성의 여가경험이 부부갈등을 완충하여 화병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함으로써 여가관광심리분야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데 분명히 공헌을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화병을 완충하는 효과로서 여가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중년기혼여성의 화병에 순기능을 발휘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중년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화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중년기혼여성의 여가경험은 화병을 감소시켜주는 심리적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수준에서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에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클리닉과 같은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설계에 관한 문제로서 여가경험을 측정하는데 있어 여행전-후의 심리적 상태를 비교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가경험에 관하여 설문응답자의 사후 기억에 의존한 설문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둘째, 연구의 표본 구성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즉, 대구·경북과 경남지역의 중년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다른 연구에서 개선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K. Choi, "Hwabyung as a Culture-Bound Syndrome and the Possibility of Healing", *Journal of Literarytherapy*, vol. 62, January 2022, pp. 63-91, doi: 10.20907/kslt.2022.62.63.
- [2] K. K. Chon, J. W. Kim, H. K. Park, "Life stress and coping styles of Hwabyung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Stress*, vol. 6, no. 1, June 1998, pp. 9-23.
- [3] M. J. Kim, M. H. Hyu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wa-byung of me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5, no. 1, January 2010, pp. 19-33, doi: 10.17315/KJHP.2010.15.1.002.
- [4] S. H. Kim, E. H. Kim, T. H.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ess-coping strategies and anger rumination: parental stress and Hwa-Byung among fa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0, no. 3, December 2014, pp. 99-121, doi: 10.15820/KHJSS.2014.40.3.005.
- [5] H. S. Shin, D. S. Shin, "Korean women's causal perceptions of Hwabyu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0, no. 4, December 2004, pp. 283-290.
- [6] S. K. Min, K. H. Kim, "Symptoms of Hwabyung",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7,

- no. 6, November 1998, pp. 1138-1145.
- [7] E. Kim, I. Hogge, J. Peter, Y. R. Shim, C. Lothspeich, "Hwa-byung among middle-aged Korean Women: Family relationships, gender-role attitude, and self-esteem",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 35, no. 5, May 2014, pp. 495-511, doi: 10.1080/07399332.2012.740114.
- [8] K. Park, "Meta analysis of Hwa-byung and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 6, no. 2, October 2014, pp. 23-38.
- [9] S. Y. You, M. R. H. Kim, J. H. Kim, "Effects of Mindfulness Meditation on Symptoms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Hwa-Byung among Middle-Aged Women with Hwa-Byung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9, no. 1, March 2014, pp. 83-98, doi: 10.17315/kjhp.2014.19.1.005.
- [10] D. Coleman, S. E. Iso-Ahola, "Leisure and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5, no. 2, January 1993, pp. 111-128, doi: 10.1080/00222216.1993.11969913.
- [11] Y. Iwasaki, R. C. Mannell, "Hierarchical dimensions of leisure stress coping", *Leisure Sciences*, vol. 22, no. 3, July 2000, pp. 163-181, doi: 10.1080/01490409950121843.
- [12] E.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Leisure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 Aged Coupl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Human Movement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Online]. Available: <https://www.riss.kr/link?id=T13522250>.
- [13] J. H. Kwon, J. W. Kim, D. G. Park, M. S. Lee, S. G. Min, H. I. Kw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wa-Byu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no. 1, February 2008, pp. 237-252, doi: 10.15842/kjcp.2008.27.1.014.
- [14] S. J. Moon, "The middle-aged women's relationship with marital conflict and stress : Do leisure experiences have a stress coping effect?", *Regional industry review*, vol. 41, no. 4, November 2018, pp. 97-122, doi: 10.33932/rir.41.4.5.
- [15] S. J. Moon, "The middle-aged women's relationship with marital conflict and negative emotions - Do leisure experiences have a psychological buffering effect?",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17, no. 3, September 2013, pp. 105-128.
- [16] D. W. Ko, "Psychological Effects of Tourism Experiences : The Leisure Therapeutic Perspectiv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 10, no. 1, March 2008, pp. 1-20.